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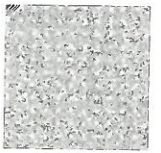
시온 주보

제2405호 2022년 7월 31일(다해)

연중 제18주일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정순택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입당송 | 시편 70(69), 2, 6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저의 도움, 저의 구원은 주님이시니, 주님, 더디 오지 마소서.

제1독서 | 코헬 1, 2; 2, 21-23

화답송 | 시편 90(89), 3-4, 5-6, 12-13, 14와 17(◎ 1)

◎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은 말씀하시나이다. “사람들아, 돌아가라.” 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사옵니다. ◎

○ 당신이 그들을 쓸어 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 같사옵니다. 아침에 돌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

○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소서. ◎

제2독서 | 콜로 3, 1-5, 9-11

복음환호송 | 마태 5, 3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음 | 루카 12, 13-21

영성체송 | 지혜 16, 20 참조

주님은 하늘에서 마련하신 빵을 저희에게 주셨나이다. 그 빵은 누구에게나 맛이 있어 한없는 기쁨을 주었나이다.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



하성용 유스티노 신부 | 사회사목국 부국장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교육을 위해 세 번 이사했다는 고사입니다. 맹자는 어린 시절에 묘지 근처와 시장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맹자는 공부보다는 장례 예식을 따라 하는 것과 물건 파는 것을 따라 하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 결국 맹자 어머니는 서당 근처로 이사하였고, 맹자는 공자와 함께 유학을 대표하는 대학자가 되었습니다. 이 고사의 핵심은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최대한 좋은 것만 보여주고자 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은 동서고금을 초월합니다. 그것이 부모님 사랑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최대한 좋은 것만 보여주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눈팔아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그렇지, 우리가 바르지 못한 것은 하느님의 탓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사를 시작하면서 고백 기도를 함께 바칩니다.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라고 하느님과 교회, 그리고 공동체 앞에서 고백합니다. 좋지 않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느님과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저지르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맹자가 서당 근처에 살았어도 바르지 못한 일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맹자는 더 많은 바른 것에 집중했기에 대학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하실 때도 바르지 못한 일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공동

체는 더 많은 바른 일에 집중했기에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선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과 하느님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의 사랑과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나쁜 생각과 말과 행동은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나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좋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나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불륜, 더러움, 욕정, 나쁜 욕망, 탐욕 같은 것을 죽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좋을 수도 있고, 좋은 것을 줄 수도 있겠지만 영원히 지속될 수 없고 영생을 얻는 데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한눈팔지 말고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앞에는 바른 것과 바르지 못한 것, 좋은 것과 좋지 못한 것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고 그에 따른 책임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와 우리의 부모님에게 바른 것과 좋은 것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받아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요당리성지, 경기도 화성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골로 3,4)

요당리성지에는 박해로 순교하신 일곱 분의 무덤이 십자가상과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순교자들도 부활의 영광 속에 다시 나타나실 것을 염원하는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기꺼이 눈을 들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하느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임을 이룰 것입니다.



김대환 안드레아 | 가톨릭사진가회

특별한 외출, 특별한 만남

저는 소아마비로 오른쪽 다리에 지체 장애가 있어, 어릴 때부터 수녀님들과 주변 사람들, 사회복지사님들의 보살핌과 도움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른이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며 살겠다고 다짐하곤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많이 해왔는데 작년 5월부터는 매달 두 번, 아침 일찍부터 부산을 떠나 특별한 외출을 합니다. 목적지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사랑이 넘치는 명동대성당 안쪽에 마련된 명동밥집입니다. 명동밥집은 한 끼 식사가 아주 소중한 분들(노숙인, 독거노인 등)에게 한 끼의 식사로 예수님의 사랑과 성모님의 사랑을 전하며 느끼게 하는 곳입니다. 봉사하러 오는 날은 약 5시간 동안 특별한 손님들과 만나게 되는데, 우리 손님들이 식사를 다 하고 가실 때 '잘 먹었다.'고 '감사하다.'고 인사해주는 한 마디에 저는 훈훈함을 마음껏 느낍니다.

다른 봉사도 많이 해왔고, 모든 봉사가 다 의미가 있지만 명동밥집의 봉사는 저의 신앙에 개인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큼니다. 예수님께서도 헐벗고 굶주린 이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한 끼 식사가 소중한 우리 특별한 손님들을 위하여 아침 일찍부터 음식을 준비하시는 담당 신부님과 명동밥집의 모든 것을 총괄하시는 사무국장님, 그리고 여러 신부님, 학사님들, 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기 위해 오시는 봉사자님들의 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정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비록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는, 아주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서 할 수 있는 것은 매일 모두를 위해 기도드리고 명동밥집을 찾아 주시는 우리 손님들을 마음으로 지지하는 것뿐입니다만, 매달 두 번 명동밥집에 봉사하러 가는 날은 그 어떤 봉사보다 긍지와 뿌듯



배동식 세례자 요한 | 명동밥집 봉사자

함, 기쁨을 가득 가슴에 담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사랑, 성모님의 사랑을 가득 받는 체험은 덤이고요.

어린 시절의 다짐으로 봉사 활동을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니 정식으로 전문 교육을 받아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50대 중반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해서 지금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그리고 교정 사목 봉사를 하는 지인을 따라 교도소에 몇 번 방문하면서, 재소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예비자교리 봉사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교리신학원에 입학하여 올해 초 6년 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꿈에 그리던 교리 교사 자격증도 받았으니, 이제는 한 끼의 식사뿐만 아니라 우리 특별한 손님들의 영혼에 양식을 주는 교리 봉사자로서도 만나기를 학수고대합니다. 명동밥집에 함께하는 신부님들과 사무국장님, 학사님들과 봉사자님들, 특히 우리 손님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지지하며 응원하는 마음도 잃지 않겠습니다.

한껏 묵상

다들
명동밥집
가정하러



류상에 아네스 수녀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가톨릭 신학 27

신앙은 인간에게 꼭 필요합니다!



조한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2017년 개봉한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영화 ‘사일런스’(Silence)는 일본 가톨릭 작가 엔도 슈사쿠(1923-1996)의 소설 『침묵』을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16세기 중반 일본에 가톨릭이 널리 전파됐는데, 서구 문물을 통한 발전을 기대했고, 당시엔 파격적인 평등사상을 주창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국가 체제에 위협이 되었고, 이후 약 250년간 박해가 일어났으며, 대략 4~5만 명 정도가 순교자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순교자의 나라’는 일본 가톨릭교회에 적합한 표현입니다. 엔도 슈사쿠는 박해 당시 그리스도인들과 선교사들의 삶과 신앙에 주목했습니다. 신자들을 배교로 이끌기 위해 강요했던 대표적인 것은 예수상이 새겨진 동판인 ‘후미에’를 밟는 것, 즉 가장 믿는 분이자, 최고의 이상으로 여기는 분의 얼굴을 밟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성직자들에게도 강요되었습니다. 목자들이 후미에를 하고 배교하면 신자들을 살릴 수 있지만, 본인은 배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일 순교를 선택하면 본인은 신앙을 증거하지만, 수많은 신자는 고통스럽게 죽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이라면 끝까지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얼굴이 새겨진 동판을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겠습니까? 작가는 ‘침묵’이라는 주제를 두 가지 측면으로, 즉 고통스러운 세상 안에서 침묵하시는 하느님에 대해, 그리고 신앙 때문에 고민했던 많은 신앙인의 모습에 대해 고찰합니다. 영화에서 신앙이 지닌 무게가 인상적으로 표현된 장면이 있는데, 바닷가에서 평신도 3명이 십자가에 매달린 채 익사의 고통 앞에서 하느님께 묻는 상황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슬픈데, ... 주여,

바다가 너무나 푸릅니다.” 왜 하느님은 인간의 고통과 슬픔 앞에서 이토록 침묵하고 계실까요? 침묵하고 계시는 하느님께 내 모든 것을 믿고 맡겨도 되는 걸까요?

신앙이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느님을 계시에 근거해 무조건 받아들이고,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평생 품고 사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 힘으로 어찌지 못하는 삶과 죽음 등을 하느님 은총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고, 하느님 부르심에 ‘예!’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깨달은 내용에서 출발하고, 하느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어, 인간 눈높이에서 살고 기도하며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믿도록 이끌어 주시고, 동시에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신앙이란 동의하며 생각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느님을 아는 것(이성)과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신앙) 중에 더 중요한 것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는 하느님을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 더 잘 믿기 위해서입니다. 신학 지식이 풍부해야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혼란한 세상에서 하느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중요합니다.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과 삶과 세상에 대한 가장 깊고 정확한 답이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이기에, 모든 인간에게 꼭 필요합니다.



성령과 함께 교회를 새롭게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 교구단계를 통해 하느님 백성 안에서 올려 퍼진 성령의 이끄심을 식별하며 작성된 서울대교구 시노드 교구종합문서를 신자들에게 안내하고 홍보하기 위한 해설을 마련하였습니다. 서울대교구 시노드 교구종합문서(성령 안에서 함께 가는 교회) 전문은 서울대교구 시노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주열 베드로 신부 | 통합사목연구소 소장, 시노드 교구 실무자

성령과 함께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에 우리 모두를 참가자로 초대하셨습니다. 이에 서울대교구는 교구단계 시노드 여정을 통하여 이번 세계주교시노드의 주제인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사명'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차리고자, 하느님 백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종합하고 식별하여 교구종합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서울대교구 시노드 교구종합문서를 이해하는 중요한 핵심은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께 귀 기울이며 그분의 이끄심에 따라 함께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노드 교구종합문서의 서론에서는 시노달리타스(시노드 정신)를 살아가는 교회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것이 이번 시노드 교구단계의 목표임을 밝히며 교구단계에서 시노드 여정에 동반할 봉사자들을 양성하고, 참가자들

이 자신의 삶을 이끄시는 성령을 인식할 수 있도록 준비했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노달리타스를 이해하고 체험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의 부족과 시노달리타스 개념, 성령 체험 그리고 경청과 대화의 어려움을 언급하였습니다.

개인 성찰과 소그룹 모임

교황님께서는 이번 시노드 교구단계 참가자들에게 성령께서 각자의 삶 안에서 어떻게 함께하시는지를 살피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살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 서울대교구는 지역·지구·본당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시노드를 위한 개인 성찰과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개인 성찰은 자신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신앙 체험 안에서 함께하셨던 하느님을 살피봄으로써 하느

님과 인격적 친교를 체험하고,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소그룹 모임은 성령 체험을 함께 나누고 경청하여 식별하고, 시노달리타스 교회가 되기 위해 제안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실제로 소그룹 모임에서 참가자들은 자신의 성령 체험을 나누면서 하느님 체험을 선포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소그룹 모임에서 함께 나누는 개인의 신앙 체험이 교회 공동체의 신앙 체험으로 성장하는 것을 느꼈으며, 하느님 백성으로서 시노달리타스 교회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여 자신의 성령 체험을 나누고 제안하는 것을 통해 시노달리타스 교회를 실현하고 하느님 백성의 시노달리타스를 성장시키는 체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남과 경청

시노드 교구단계를 통하여 교회를 새롭게 하는 시노달리타스 여정은 성령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하느님 백성의 만남과 경청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교구단계에서 소그룹 모임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로 진행된 개인 성찰을 통해 참가자들은 자신의 삶 안에서 함께하시는 하느님이신 성령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에 귀 기울였습니다. 또한 소그룹 모임을 통해 하느님의 백성이 서로 만났고, 서로의 체험을 나누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서로의 체험을 경청하면서 함께 식별하고 감사드리며 시노달리타스 교회의 친교를 체험하였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느님의 백성이 함께 만나고 경청함으로써 체험한 시노달리타스 교회의 친교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함께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하느님 백성의 친교 체험 안에서 교회의 친교와 참여를 방해하는 것들을 비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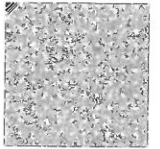
눈이 아니라 쇠신하고 변화할 수 있는 안목으로 가지고 식별하도록 이끄셨습니다. 또한 교회 생활과 직무 수행 중에 일어나는 성직주의, 권위주의, 교회의 세속화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무관심을 식별하도록 이끌어 주셨고, 여성, 장애인, 젊은이와 노인, 이주민과 난민, 성소수자 등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새롭게 바라보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

친교를 새롭게

이번 시노드의 주제인 친교(communio)는 직무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시노달리타스 교회의 친교는 하느님 백성이 삼위일체 하느님을 본받아 함께 직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온전히 친교를 이루시는 것처럼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 역시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가 하느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직무를 함께 수행합니다. 이렇게 동등하면서도 고유한 신분과 직무를 가진 사람들이 하느님께서 하신 일, 곧 하느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저마다의 자리에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노달리타스 교회의 친교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하느님 백성이 함께 거행하는 전례 예식임을 하느님 백성의 고백으로 재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구종합문서에서 참가자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느님 백성 전체에게 전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제안한 것입니다.

참여를 새롭게

이번 시노드의 주제인 참여(participatio)는 전체에서 부분을 나누어주고 나누어 받는 것으로, 시노달리타스 교회를 이루는 하느님 백성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건전한



권력 분산과 연관이 있기도 합니다. 참여는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나누어주고 나누어 받는 것입니다. 동등하면서도 고유한 품위를 지닌 하느님 백성이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면서 행사하는 권한은 하느님과 교회를 위해 나누어 받은 권한이며, 그 권한을 나누어 받음으로써 하느님의 친교와 교회의 사명에 참여하고, 또한 그 일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 시노드에 하느님 백성 전체를 초대하신 교황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그룹 모임을 통해 시노달리타스 교회를 위해 제안한 것은 교회의 사명인 복음화와 복음 선포를 위해 하느님 백성으로서 시노달리타스 교회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전한 권력 분산이란 시노달리타스 교회 안에서 참여를 확대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구종합문서에서는 시노달리타스 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구와 본당의 사목평의회를 위원회를 선발하는 교회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만나고 경청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사명을 새롭게

이번 시노드의 주제인 사명(missio)은 시노달리타스 교회에 맡겨진 복음화와 복음 선포입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선교(missio)와 관련이 있습니다. 시노달리타스 교회가 수행해야 하는 사명이 곧 선교이며, 선교가 곧 시노달리타스 교회의 사명입니다. 시노달리타스 교회가 내적인 쇄신을 이루려고 준비하는 전례 거행, 신앙 교육, 조직 개편을 포함한 모든 것은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사회와 대화하고, 타 교파를 만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

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노달리타스 교회가 하느님 백성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자체가 일방적인 자기주장이 난무하는 우리 시대에 세상과 사회를 향해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시노달리타스 교회는 만남과 경청을 통해 하느님 백성 모두가, 또한 교회가 존재하는 세상 안에 살아가는 모든 이가 서로 만나고 서로의 목소리를 경청함으로써 친교를 이루고, 공동선을 위한 책임과 협력을 증진시키도록 담대한 경청을 복음적 대안으로 제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노달리타스 교회의 선교는 바로 세상을 위한 교회의 첫 번째 봉사입니다.

관계를 새롭게

시노달리타스 정신을 살아간다는 것, 성령 안에서 함께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느님 백성의 관계를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화와 복음 선포를 위하여 하느님 백성이 하느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교황님과 주교단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교회 조직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고유하면서도 동등한 품위를 지닌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 상호 간의 직무를 시노달리타스 교회의 친교와 참여와 사명의 맥락에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세상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과 사회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 만나고 경청함으로써 하느님다운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 존재로서 서로를 위해 함께 성장하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이번 제16차 세계주교 시노드의 목적이며 결실입니다. 시노드 교구단계로 이번 시노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번 시노드는 교구단계로 시작한 것입니다. 하느님 백성 모두가 참여하여 만나고 경청하는 시노드 여정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서울주교와 함께 만드는 가톨릭교리상식 코너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질문으로 꾸며집니다.

! 고백할만한 죄가 없는데도 판공성사를 의무적으로 꼭 봐야 합니까?

판공성사에 '의무'라는 말이 붙어 있다 보니 고해성사를 말 그대로 등 떠밀리듯 억지로 해야 한다는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사순, 대림이라는 특정한 기간에 종속되고 시간의 제약에 놓여있다는 오해에 따른 압박감이 더욱 그런 고민을 깊게 하는 것은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하지만, 판공성사를 의무로만 받아들이는 마음도, 판공성사를 특정 기간에 반드시 봐야 한다는 생각도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판공성사는 1년 중 어느 때라도 고해성사를 받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위 '집중판공' 때 고해성사를 드려야 판공성사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집중판공은 교우분들을 압박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미사 시간 전 잠깐 준비되는 고해소의 시간제한 때문에 고해성사를 보지 못한 분을 위한 배려입니다. 만약 성찰이 충분히 되지 않으셨다면, 집중판공 기간은 그대로 보내시고 나중에 준비를 충분히 하신 후에 고해성사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1년에 한 번도 고백해야 할 죄가 딱히 느껴지지 않기에, '1년에 한 번'이라는 규정조차 무거운 의무로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죄의 속성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일학교 교사 시절, 학생들을 데리고 강에서 조그만 배를 타는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물방울 튀기는 것조차 싫어하던 아이들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쾌활하게 웃으며 물놀이를 즐겼고, 나중에는 서로에게 물도 뿌려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장비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에 신부님께서 아이들에게 조용히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에 강렬히 남아 있습니다. "물에 젖어가는 것이 죄에 젖어가는 것과 같단다. 사람은 처음에는 작은 죄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기 마련이지만, 그것에 익숙해지면 점점 큰 죄를 짓는 것에도 무뎌지고, 급기야는 남도 죄로 끌어들이게 되지." 1년에 한 번조차 고백할 죄가 딱히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의 결백함 때문인지, 아니면 죄에 무뎌진 탓인지 성찰해보면 어떨까요. '1년에 한 번은 의무'라는 규정은 우리에게 그러한 성찰을 통해 죄짓는 것에 민감해질 것을 촉구하는方便일 테니까요.

가톨릭교리상식
2021년 7월 18일 자 주보



특별헌금 모금 현황(2022년 상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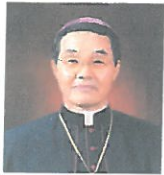
2022년 7월 15일 현재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교구청)

(단위: 원)

모금일자	특별헌금	참여본당	금액(원)	지급처
1월 30일	해외원조주일 2차헌금	219	361,480,249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4월 10일	사순절 이웃돕기	219	406,629,698	가톨릭사회복지회
4월 15일	예루살렘성지	223	285,020,840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5월 8일	성소주일 2차헌금	214	396,967,796	교황청전교기구한국지부
5월 15일	청소년주일 2차헌금	217	372,617,570	청소년국
5월 22일	현미헌금 2차헌금	214	411,012,237	한마음한몸운동본부
5월 29일	홍보주일 2차헌금	216	384,464,640	가톨릭평화방송. 평화신문
6월 19일	민족의화해와일치기도(단식모금운동)	205	357,376,275	민족화해위원회
6월 26일	교황주일 2차헌금	219	406,527,090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계			3,382,096,395	*본당 217, 국제 1, 준본당 9, 선교본당 5 총 232

장인남 대주교 네덜란드 교황대사 임명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교황대사이며 라오스 교황사절이었던 장인남 바오로 대주교를 네덜란드 교황대사로 임명하셨습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87년 8월 4일 정낙교 시몬 신부(34세)
- 1990년 8월 4일 김철규 바르나바 신부(72세)
- 2021년 8월 5일 황인국 마태오 몬시뇰(86세)

주보 게재 신청: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

교구청일람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복된 본당 갖기) 미사

때, 곳: 1329차 미사 8월2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본당: 서울대교구 사리원 본당, 정봉 본당
미사 후에 한반도 평화와 북핵본당을 위한 묵주 기도를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반주 봉사자 모집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생태환경사도직 단체 하늘땅물빛이 주관하는 미사, 기도 모임, 연수 등에서 반주해 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대상: 건반 등의 악기 반주 봉사자
문의: 02)727-2283, 2278(ecocatholic@hanmail.net)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8월 복콘서트 '성가 이야기'-가톨릭성가 부르기 모집

대상: 모든 가톨릭 신자
때: 매주(화) 19시30분~21시 · 매주(금) 10시~11시 30분 중 택1 / 등록기간: 7월18일(월)~8월1일(월)
곳: 최양업홀(전철 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문의: 02)393-2213~5(www.casm.co.kr)

사목국 '성서못자리' 2022 하반기 강좌 / 문의: 02)727-2379

접수기간: 8월1일(월)~29일(월) / 선착순 인터넷 접수
접수링크: <http://samok.or.kr/html/bibleseedbed> 인터넷창에서 성서못자리를 검색하세요

1) 명동 오전 정기강좌(정기강좌 및 나눔터학회)

때, 곳: 9월5일~12월12일 매주(월), 명동 교구청 내 강의실(15주 강의)
강의시간: 10시30분~12시30분

개강미사: 9월5일 11시30분, 명동대성당

회비(교재 지급): 정기강좌 8만원, 나눔터 7만원

강사신부 및 강의실 홈페이지 참조

2) 청년(요한복음), 직장인(정기강좌 2번) 성서못자리

때: 9월7일~12월14일 매주(수) 19시30분~21시(15주 강의)

수강료(교재지급): 청년 5만원, 직장인 8만원

3) 미주 온라인(zoom) 성서못자리 정기강좌

(2번-동부 화요일 · 서부 목요일 / 입문-동부 화요일)

때: 9월6일~12월15일(매주 1회 60분 강의 / 한 학기

15회 수업) / 회비: 8만원(수수료 포함)

4) 온라인 성서못자리(에드워드) 플랫폼 활용)

때: 9월5일~12월31일 / 회비: 10만원

서울대교구 사목상담팀 '화상수업'

주제: 태아기, 탄생기, 영아기 치유
때: 8월15일~11월14일 매주(월) 20시~21시
교육 지도: 문종원 신부 / 문의: 010-6224-2920 강명인

순교자현양신심미사

때: 매월 첫째주(화) 8월2일 · 9월6일 오전 10시
곳: 절두산 순교성지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성경통독 8월 피정(사목국)

내용: 지혜 문학 / 지도: 조창수 신부
때, 곳: 8월3일(수) 13시~17시, 가톨릭회관 3층 강의실
회비: 2만원 / 문의: 010-7586-5425 (문자로 문의)

직장사목팀 성가단 AESTUS CHOIR 단원모집

대상: 20~40대 직장인 가톨릭 신자 / 모집인원: 각 파도 00명
연습(미사): 매주(금) 19시30분 · 둘째주(금) 20시, 명동대성당 코스트홀 2층 소성당
문의: 010-5203-4355 단장, 010-5104-5644 부단장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 없음)
때, 곳: 8월4일(목) 14시~15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집전: 송영호 국장신부, 김윤상 차장신부(해외선교봉사자) / 문의: 02)727-2407, 2409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문의: 02)921-5094, 010-3732-5093

8월1일	오전	가톨릭회관 3층(명동)
8월8일	10시 30분	중서울 김음동성당
8월22일		서서울 양천성당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및 예비신학생 하계 프로그램

1)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때, 곳: 8월5일(금) 14시, 명동대성당 / 문의: 02)727-2123

2) 서울대교구 예비신학생 하계 프로그램

학년	내용	때	곳	문의
중1		8월5일(금)~7일(일) 2박3일	의정부교구 한바움수련원	010-9954-2123
중2	여름캠프	7월27일(수)~29일(금) 2박3일	충청도 일대 성지	010-7640-2126
중3		8월12일(금)~14일(일) 2박3일	신학대교회 양관	010-9961-2123
고1	도보성지 순례	7월27일(수)~29일(금) 2박3일	충청도 일대 성지	010-9972-2123
고2	신학교 체험	8월12일(금)~14일(일) 2박3일	신학대교회 양관	010-2742-2123
자녀반	피정	8월12일(금)~14일(일) 2박3일	의정부교구 한바움수련원	010-2577-2123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선우현 개인전: 1전시실
갤러리1898 '성미술 청년작가 공모전' 선정작가
서예희 개인전: 2전시실
김태희 개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8월3일(수)~8일(월)

직원모집

음성꽃동네노인요양원(구원외집) 직원 모집

요양보호사 수시 채용 / 기숙사 사용 가능
문의: 043)879-0225, 0238(www.kkotnoin.or.kr)

서울평단협 사무국 직원 모집

분야: 계약직 간사 1명(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서울평단협 입사지원서, 교적 사본 각 1부
8월21일(일)까지 접수
홈페이지(www.clas.or.kr)-알림-공지사항 참조

위캔센터 HACCP 품질관리원 모집

인원: 1명 / 대상: 식품기사 자격증 소지자
업무: 과자류 해설 관리 및 사후심사 관리
서류: 입사지원서(기관양식) / 이메일(wecanc@hanmail.net) 접수
문의: 031)969-3535 신 안젤라 수녀
홈페이지(www.wecan.or.kr) 소식 참조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관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분야: 주방근무자 0명(계약직,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 이메일 문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 8월7일(일)까지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세종로성당 사무장(계약직) 모집

분야: 사무장 1명(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신자로 사무행정, 회계 업무, PC(엑셀·한글) 사용이 능숙한 분(본당 사무 경력자 우대)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8월7일(일)까지 이메일(trina279@naver.com) 및 사무실 방문·우편(우 03619,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9 세종로성당 사무실) 접수 / 문의: 02)733-1471 사무실

수도회 상소모임	III	곳	문의
돈보스코 여자 재속회	수시	영등포구 신길6동 여의대방로65	0507-1306-1505
성골롬반의방선교회	8월7일(일) 10시	서울 분부(동소문로,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02)924-3048(korvocation@columban.or.kr)
성체선교글라리아수녀회	수시	대전 서구 갈마로 187-1	010-8683-6848
양주 올리베따노 성 베네딕도 수도원	8월7일(일) 10시	수도원	010-6312-1986

모임

역삼동성당 밤 기도회

때: 매주(금) 오후 7시 미사 후, 오후 7시40분~9시40분 / 진행: 이상기 등 은사자
문의: 010-2777-8840, 010-7156-5231

예수고난회 명상의 집 대침묵 피정

내용: 공동기도수행, 강의, 영적지도 / 문의: 02)990-1004
때, 곳: 8월11일~14일·8월25일~28일(3박4일), 명상의 집(우이동) / 개인 피정(수시), 위탁 피정 별도 문의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내용: 고해성사, 미사, 묵주기도, 성체조배
때, 곳: 8월6일(토) 16시30분(미사), 가톨릭회관 205-2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1박2일 무료 치유 피정(청주교구 성령새신봉사회)

때, 곳: 8월5일(금) 18시~6일(토) 17시, 청주교구 초정성령회관 / 버스운행: 17시 조치원역 앞 신한은행·17시20분 청주고속터미널 앞 다이소
문의: 010-4400-1344, 043)213-9103

대구·부산·마산교구 순례·왜관 수도원 전례·탐방

때, 곳: 9월1일~4일(부산·마산)·11월11일~15일(대구·울릉도·독도)·12월3일~5일(대구17)·12월16일~19일(부산·마산), 왜관 수도원 피정의 집(주최)
출발: 서울(대형버스) / 문의: 010-3807-1784

초대합니다

강우일 주교와 함께 걷고 듣는 제주이야기
대상: 개인, 단체 누구나(구역반장, 단체는 맞춤 피정 가능)
때, 곳: 9월23일~25일·10월18일~20일·11월18일~20일·12월5일~7일, 제주 성 이시돌 피정의 집
문의: 010-5100-3845 한국통합사목센터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105차	8월12일(금)~20일(토)	문의: 061)373-3001,
제106차	9월9일(금)~17일(토)	010-3540-9001

파티마의 성모님과 함께 바치는 로사리오 기도회와 미사

시간: 14시~16시 / 준비물: 묵주, 미사 준비
문의: 02)3147-2402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02)3142-4434 절두산 순교성지

8월13일(토)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정순택 대주교
9월13일(화)	절두산 순교성지	구요비 주교
10월13일(목)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염수정 추기경

교육

수제 묵주 기초에서 전문까지(가톨릭묵공예)

카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장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다함께 성가를’ 발생교실

가톨릭평화방송TV 이호중 교수 직장
곳: 시스파니움악원(주최, 신촌) / 문의: 010-9842-8818

서울대교구 전례꽃꽂이 연구회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때, 곳: 9월1일 가을학기 개강부터 매주(목) 15주, 가톨릭회관 / 문의: 010-9590-4560, 010-5236-5493

성바오로수도회 말씀학교 영성강좌

내용: 마르코 복음 / 문의: 010-6287-9753
때: 9월1일(목) 10시~12시30분(미사 포함)
곳: 성바오로수도회 본원 / 회비 없음

서울대교구 34기 아버지학교 지원자 모집

때, 곳: 8월21일~9월25일 매주(일) 13시30분~18시30분(5주), 답십리성당(추석연휴 휴강) / 회비: 10만원
문의(접수): 0505-503-7080(hsson5555@hanmail.net)

한국외방선교회 성서인문학 강좌

대상: 성서인문학 강좌에 관심 있는 분
때, 곳: 매월 첫째주(수) 15시~16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강사: 김병수 신부(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14시, 소성당 / 문의: 02)3673-2528.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 모집

내용: 기계가공, CAD·CAM
대상: 만 15세~40세 남자 / 취업지원(취업률 95% 이상)
때: 8월22일~2023년 3월31일 / 문의: 02)828-3600
혜택: 교육비·기숙사비(선택) 무료

2022년 가톨릭뮤직캠프(1박2일)

때: 8월26일(금)~27일(토) 1박2일
곳: 파주 참회와속죄의성당 민족화해센터
과목: 소프라노, 알토, 남성 성가발성반 등
회비: 15만원(단체할인 가능) / 문의(접수): 010-5245-2848 모니카교회음악원(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돈보스코미디어스쿨 신입생 모집

과정: 고등과정(17세~24세) / 문의: 02)833-0930
검정고시반, 독서, 사회, 영어, 체육, 미디어, 제작체험, 미술, 사진 / 남자기숙사 운영
곳: 돈보스코 미디어스쿨(양천구 신월3동)
홈페이지: http://db-mediaschool.kr

불모임 聖化(성화)학교 입학생 모집(사이버교육)

대상: 신앙성숙을 갈망하는 사람 누구나 / 회비 없음
때: 8월1일~9월16일 / 지도: 이범주 신부
개강미사: 9월20일(화) 15시, 자양2동성당
접수: https://cafe.daum.net/BulmoimSchool
문의: 010-3789-0620 자양2동성당

모임

그레고리오성가 전문 연주 단원 모집

서울대교구 그레고리오성가 전문 서울그레고리오 성가단에서 활동할 연주 단원 몇 분을 모집합니다
선발: 성악 전공 무관, 가톨릭성가 중 1곡 가창 오디션
대상: 만60세 미만의 남성 영세자 / 의무: 주1회 그레고리오성가 집합 학습 및 라틴어 미사 봉헌
문의: 010-2245-0454 양윤석 지휘자

미사

성공률반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때: 8월5일(금) 14시~16시 / 지도: 양창우 신부
곳: 가톨릭회관(전철 4호선 명동역) 1층 / 문의: 02)929-2977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 문의: 02)3673-2525

때, 곳: 8월3일(수)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오순절평화의마을 8월 후원회 미사 / 문의: 051)782-0765

때, 곳: 8월4일(목) 11시(미사·안수), 가톨릭회관 3층 강당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 문의: 02)776-0457

군중신부 특강 및 군 복무중인 청년과 회원을 위한 미사
때, 곳: 8월1일(월) 14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

첫토요일 신심미사(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내용: 고해성사, 미사 / 02)756-3473, 010-2759-3473
때, 곳: 8월6일(토) 9시30분~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콘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성모신심미사

내용: 성모마리아 신심 미사 / 문의: 02)793-2070
때, 곳: 8월6일(토) 10시, 프란치스코 수도원(한남동)

노고산성지 월례미사

때: 매월 첫째주(목) 8월4일 오전 11시
곳: 서강대학교 성이냐시오성당
문의: 02)705-8161 서강대학교 교목처

갯세마니 첫 목요일 성시간·미사(말씀의 선교 수도회)

대상: ‘예수성심의 온전한 사랑’ 말씀의 치유를 바라는 신자 / 문의: 02)312-7211 선교 사무실
때, 곳: 8월4일 19시~21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절두산순교성지 로사리오회 예수성심 신심미사

내용: 연명과 가정을 위한 기도회와 미사
때, 곳: 8월5일(금) 11시30분, 절두산 성지(전철 2호선 합정역 7번 출구) / 문의: 02)3142-4434

북방선교회 후원회 월례미사 / 문의: 010-6219-1575

대상: 북방선교회 관심있는 분은 누구나 / 회비 없음
집전: 김윤상 신부(해외선교봉사자 차장)
때, 곳: 8월3일(수) 14시, 가톨릭회관 205-2호

인내

나를 찾는 심리상담

대상: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 청소년, 여성 신자
곳: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연남동 분원(주최)
문의: 010-3703-5904 경혜자 수녀

인천 성안드레아 피정의 집 캠프 및 피정

초·중·고·청년 위탁 CAMP 및 자체(수영장 사용 가능), 예비자 및 성인 피정
때: 7월~8월 / 문의(접수): 032)465-0835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물자비의수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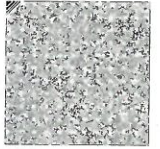
모니카의 집 공동생활가정 입소 어르신 모집

대상: 일상생활이 가능한 65세 이상 여성 어르신
모집인원: 3명 / 시설운영: 한국순교복자수녀회
곳: 광진구 자양로 33길 36(어린이 대공원 동문)
문의: 02)455-3593, 010-8707-6913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일상담 가능

개인심리치료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등
가족심리치료	부부, 가족(자녀)간의 갈등, 행동문제, 대인기피



“행복하여라, 그분께 피신하는 이들 모두!”

휴가철, 무더위를 잠시나마 식혀 줄 신앙 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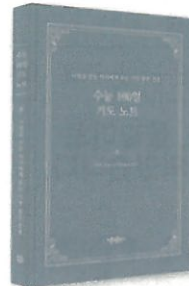


신간 도서 말씀과 숨

20세기를 빛낸 위대한 신학자
이브 콩가르 추기경의 성령론

| 이브 콩가르 지음 | 가격 미정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면, 교회의 심장은 '성령'입니다. 이 책은 현대 성령론의 기초를 놓은 신학자이자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이브 콩가르 추기경의 성령론이 담긴 책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알리고 활동하시는 방법에 대해 깊이 알아 가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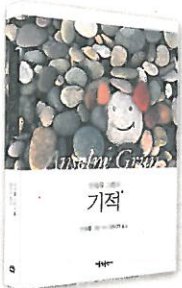


수능 D-100 수능 100일 기도 노트

시험을 앞둔 자녀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 기도 노트

| 가톨릭출판사 편집부 지음 | 14,000원

중요한 시기를 보내는 수험생을 위해 100일간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달라지는 주제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기도 노트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용기와 격려가 필요한 수험생과 가족에게 큰 힘과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 선물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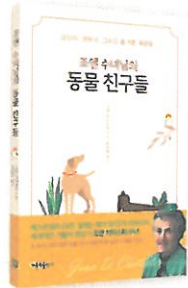


휴가철 추천 도서 안셀름 그윈의 기적

안셀름 그윈 신부가 알려 주는
평범한 순간들의 의미

| 안셀름 그윈 지음 | 17,000원

반복되는 일상이 지겹고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면 지금 《안셀름 그윈의 기적》을 만나 보세요. 영성 심리 상담의 대가인 저자 신부는 우리 일상을 채우는 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깨닫는 법을 알려 줍니다. 평범한 일상 안에 숨겨진 기적을 깨닫고 어제보다 행복한 오늘을 맞이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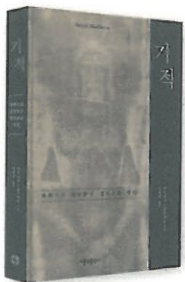


휴가철 추천 도서 조앤 수녀님의 동물 친구들

어느 날 찾아온 작은 친구들이
안겨 준 큰 깨달음의 순간들!

| 조앤 치티스터 지음 | 13,000원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의 저자 수녀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에서 발견한 지혜와 영성을 다룬 책입니다. 어느 날 찾아온 두 마리 개와 한 마리 앵무새, 이 작은 친구들이 어떤 큰 깨달음을 안겨 주었을까요? 우리 영혼을 풍요롭게 해 줄 특별한 우정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휴가철 추천 도서 기적

신앙인을 위한
하느님의 영적 표징, '기적'

| 파트리크 스발키에로 지음 | 20,000원

기적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에 불과한 것일까요? 오늘날 일어나는 기적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책은 현대 과학으로 불가사의함을 인정받은 가톨릭교회의 여러 기적을 다룹니다. 역사학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기적'의 진정한 의미를 만나 보세요.



휴가철 추천 도서 마음 in 말

나를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의 말하기!

| 로랑 데블베 지음 | 14,000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떨지 않고 담담히 말하고 싶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가치 있는 말을 하고 싶다면, 지금 《마음 in 말》에 주목해 보세요. 말씀의 모범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언어의 기술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제2239(성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

연회교회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회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연령회장 : 지명국(비오로) 010-5512-4450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 아 세 례	홀수 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월요일 : 06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7월 30일(토) 초등부주일학교 물놀이를
어린이미사는 오후 2시로 변경되었습니다.

◎ 초등부주일학교 물놀이

일시 : 7월 30일(토) 오후 3시~5시, 성당마당

※ 오후 5시까지 성당마당 차량을 통제합니다.

◎ 성모 신심 미사 : 8월 6일(토) 오전 10시

◎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8월 15일(월)	오전 7시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 주일학교 미사는 없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은
가족들과 함께 미사참례 하시기 바랍니다.

◎ 8월 병자영성체 없습니다.

◎ 복사단 여름캠프

일시 : 8월 2일(화)~3일(수)

장소 : 용인 캐리비안베이 & 에버랜드

◎ 중고등부주일학교 여름캠프

일시 : 8월 5일(금)~7일(주일)

장소 : 가평 힐링캠프

대상 : 중고등학생

문의 : 클라라 교감 (010-2517-3614)

◎ 초등부주일학교 여름가족캠프

일시 : 8월 19일(금)~21일(주일)

장소 : 용문청소년수련원

대상 : 초등부 가족(유치부 포함)

* 학생만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문의 : 안토니오 교감 (010-5377-8909)

※ 주일학교 여름행사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 청년 여름 산책(캠프)

일시 : 8월 27일(토) 당일

장소 : 북한산 계곡길

대상 : 20세이상 청년

내용 : 여름내 지친 자연과 자신을 돌보는
산책 여정

문의 : 청년 캠프장 (010-7255-6707)

◎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

대상 :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의 학부모

기간 : 8월 9일(화)~11월 16일(수)

일시 : 매일 오후 8시 / 소성전

문의 : 중고등부자모회장 (010-3264-7970)

※ 신청은 문자로 연락바랍니다.

◎ 하절기 성당시설 이용시 유의 사항

※ 하절기 에너지 절약을 위해 단체회합 후에는
전등, 선풍기, 에어컨이 꺼졌는지 확인해주시고,
성당의 전기, 수도 등 모든 자원을 아껴서
사용해주세요.

◎ 오늘은 성당유지보수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2. 7. 24)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1년 책정율	2021년 납부율
2,094	829 (39.6%)	786 (37.5%)	43.8%	42.5%

교무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 137-04-110875

◎ 성당유지보수기금 (2022년)

이지만일십만원 익 명오만원

누 계54,889,300원

◎ 연령회 감사헌금

고 신일옥 율리아 상가삼십만원

고 김호년 스테파노 상가삼십만원

◎ 감사헌금 (7월 18일~24일)

정수진칠만원 익 명오십만원

황영자일십만원 이병규일십만원

우성택오십만원 이지만일십칠만원

김무영일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연중 제17주일)

교무금6,638,000원

주일헌금4,712,000원

성당유지보수를 위한 2차헌금1,830,700원

입당	27	봉헌	211, 216	성체	151, 496	파견	63
----	----	----	----------	----	----------	----	----



주님 당신 은 대대 - 로 저희 안식처 가 되셨 나 이 다